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2009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해요



지난 6월 초에 개최된 여름계절학교 교사강습회를 기점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시 16:1)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수련회를 마친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이번 주부터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원, 과외, 보충수업, 동아리활동, 가족여행 등 방학을 해도 학생들이 계속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삼 일 동안 시간을 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배우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각 부서 선생님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이나 부모님을 직접 만나 참석을 권면(하) 3:13)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학업이나 그 외의 일들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국일꾼 양성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직무입니다(마 28:19~20).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진심어린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회개와 성령충만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렘 10:23).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 짐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을 밝혀주셨다(고후 12:9~10, 13:3~4). 그래서 우리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충만한 삶의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깨뜨려 드리게 하는 진정한 회개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사랑은 신자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요 14:16, 18, 21, 23).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렘 1:3~4; 롬 5:8).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계속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에게 순종함으로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이 영적 능력으로 충만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렘 3:16~19).

오순절에 임하신 진리의 영은 사랑의 영으로 신자들을 그리스도에 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이시다. 또한 이 영은 구원 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며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선교의 영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장성한 때에 이 사랑은 좀 더 높게 눈에 띄게 된다(요 13:34~35). 이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힘이 된다. 여기에 진정한 성동력이 있다.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성령의 존재를 별로 증명해 주지 못한다(마 7:22~23).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하심,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하기 때문이다(갈 5:22~23).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있게 전해 주는 것은 회개다(렘 11:17~18). 사도행전 안에서 사용된 '회개'(Conversion)라는 단어는 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회개는 개종,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 또는 이방종교를 쫓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심으로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데 쓰였다. 그러므로 신약에 나타나는 회개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것을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상태로 보았다. 처음에 회개하고 죄인이 주께로 돌아온 바로 그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한다(골 2:6).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는 생수의 강을 위한 자리가 넓혀진다. 내 안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들이 내 뱃속까지 깊이 몰들어 있음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된다.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참 생명과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랑과 회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대답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부처진 자들이다. 회개는 영광의 주님이 인간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다. 영광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의 생명을 받은 자의 중심에서 존귀함을 받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다. 이전에는 자식만을 사랑함으로 삶을 소멸시켰으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만을 사랑하던 그 이기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200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시 16:1)

부서	일시	장소	부서	일시	장소
대학부	7월 13일(월)~15일(수)	충현기도원	소년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507호
장년1부	7월 17일(금)~18일(토)	충현기도원	중동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장년2부	7월 18일(토)	제1교육관 407호	중동2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예배디부	7월 18일(토)	제1교육관 1층	충동3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영아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110호	고동부	7월 27일(월)~29일(수)	충현기도원
유아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201호	청년2부	8월 14일(금)~15일(토)	충현기도원
유치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207호	청년2부	8월 15일(토)	제1교육관 2층
유년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307호	사랑부	8월 15일(토)	복직자 지하1층
초등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407호	예배디부	8월 15일(토)	*성인반 제2교육관 1층

THE GREATEST MISTAKE WE CAN MAKE

*But if you will not do so, behold, you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be sure your sin will find you out.*

(Numbers 32:23)

God loved the Israelites, and provided them with blessings. His blessings required them to follow His orders. If they did not listen to His orders, then they sinned against Him. We all make mistakes. Some mistakes are more serious than others, and some are so slight that they make us laugh. Today I'm not talking about the silly mistakes that everyone makes, like misplacing keys, nor am I talking about the more serious ones, like crashing cars into people. I'm talking about the greatest mistake we can make. Listening to the Lor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and not listening to Him is the greatest mistake we can make. There's no mistake more serious than thinking we can get away with sinning against the Lord.

Sin affects our fellowship with God. Our life here on earth is a constant battle. We are fighting against the enemy, the devil, every day. When God created humankind in the Garden of Eden, He made them like Him,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Gen. 1:26). Not only that, but everything He made was beautiful,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Gen. 1:31). Adam and Eve got to walk and talk with God. They were able to fully enjoy life. Just imagine how wonderfully great their blessings had to be. Sadly, the snake came, sin entered the world, and the fellowship with God was broken. Instead of looking forward to their walks with God, Adam and Eve hid themselves from Him. When David did not immediately confess his sin, God chastened him physically and emotionally, "When I kept silent about my sin, my body wasted away Through my groaning all day long. For day and night Your hand was heavy upon me; My vitality was drained away as with the fever heat of summer" (Ps. 32:3-4). Sin brings anxiety and a lack of assurance. It robs us of having the joy of the Lord. David prayed for restoration,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sustain me with a willing spirit" (Ps. 51:12). Living in sin is so serious that it even keeps our prayers from being answered, "If I regard wickedness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Ps. 66:18). Sin is serious! Only the death of Christ could atone for it,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Jn. 1:7-9).

Sin affects our family. The consequences of sin really hit hard on Adam's family, "And it came about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Gen. 4:8). The first family experienced an older brother killing his younger brother. When David had an adulterous relationship with Bathsheba, God killed their first-born son because of his sin, "However, because by this deed you have given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e, the child also that is born to you shall surely die" (2Sam. 12:14). Personally, I have witnessed so many times the terrible effects of the sins of parents on their children, the sins of children on their parents, and the

sins of married couples on each other. Life's purpose for Christians is not selfishness, "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Rom. 14:7-8). In denying ourselves, taking our crosses, and following Jesus we have victory over sin.

Sin affects us physically. The Bible warns us that when we partake in the Lord's Supper we need to examine ourselves carefully,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1Cor. 11:29-32). Sin brings chastening. Sin brings curses. Sin brings destruction. Galatians 6:7-8 remind us,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Sin can affect you forever.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No matter what, there is a judgment that no one can escape,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Jesus says, "I am coming quickly; hold fast what you have, so that no one will take your crown" (Rev. 3:11). Though your salvation cannot be lost, your reward can be. Sin affects service and causes the Christian's rewards to diminish. The good news is that sin can be forgiven. Christ died for our sins. He died, resurrected, ascended, and is now preparing our eternal homes. He's coming back soon. Everyone who has been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will go to heaven because by our faith we are justified,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 5:1). Believers can live a victorious life all the time,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n. 10:10). Our hope for the future gives us incentive for daily service,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Cor. 15:57-58). In Jesus, believers can have daily victory.

My dear friend, you cannot overcome sin on your own. You need Jesus. Without Jesus we are nothing. Please don't be proud of yourself. Pride causes you to make the greatest mistak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just follow Jesus. Please don't make sin. If God gives you an order, and you don't fully obey, let's say you do 90% of what He asks and the other 10% you do your own way, then you can be sure that 10% of sin will find you out. Why? Anything less than 100% compliance with God is sin, and sin is your greatest problem. You can never sin and win. Whenever pride enters, you lose. You need to let the Holy Spirit control you. Amen. 🙏

| 다음 주일 설교 |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23)



김성관 목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실수들도 있고 웃음을 자아내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열쇠를 잘못 두거나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하는 바보같은 실수들에 대해 말하는 것도, 차를 균형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실수에 대해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에 큰 타격을 준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원수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최초의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으며 그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육신과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정해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시 32:3~4). 죄는 근심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으로 회복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 51:12). 죄 아래에서의 삶은 심지어 기도의 응답을 막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죄는 심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죽음으로만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9).

죄는 가정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죄의 결과는 아담의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 4:8). 인류의 첫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제자로 다윗의 맏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빚방한 거래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삼하 12:14). 개인적으로 나는, 부모의 죄나 자녀들의 죄 그리고 부부 간의 죄가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도 우리가 살아가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7~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신에 악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잡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29~32). 죄를 지으면 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7~8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는 당신의 영원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 6:23은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히 9:27).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예배에 영향을 주며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줄여줍니다. 기쁜 소식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신자들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우리에게 현실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전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고전 15:57~58).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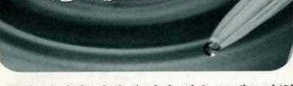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가장 큰 실수를 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이나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 90%만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10%만은 죄를 반드시 짓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마다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마가복을 강해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9. 7. 8)

모세의 간구

(출애굽기 33:12~23)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읽은 모세오경(창·출·레·민·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예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익힌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토록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유망해지면 보통 그의 가족도 더불어 유명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 모세의 가족이나 그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출 2:1, 2:2, 6:14, 16:20, 23; 대상 6:3). 모든 유대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모세는 정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겔르투토와 같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찬탄했다(고후 4:7). 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한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 모세의 기도내용에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한 번(신 3:23~25)뿐, 그 외에는 전혀 없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모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살길을 찾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순종했다(출 33:13, 16, 24:18).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다(출 32:32). 반면에 우리의 간구는 어떠한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 위한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예수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요 14:5~6, 8; 시 25:4). 내 삶도 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한다(마 3:10).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두며, 그분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호 6:1, 3, 14:2). 주님과 한결 음으로 만족해야 한다(눅 22:35).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8).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았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마가복음 강해 79

잡혀시다

(14:34~52)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 예수님은 겔세마네에 올라 아백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다(막 14:42).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막 14:43).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제대로 정신을 바짝 세우고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부지런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워져 인간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종들로 보이기 때문이다(막 15:1).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것,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과 거룩함이 얽혀 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직도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몰랐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갔다. "랍비여 하고 있을 맞추니"(막 14:44~46). 보통 때 같으면, 가롯 유다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온 상임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팔았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닌 충회를 위해 일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 진정 하나가 된다.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를 보더라도 그렇다. 종교가 문화에 섞일 때 사람들은 이에 베풀 수 보인다.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영이 소외된다. 주님의 친족들도 마찬가지로(마 3:21).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진리를 말구유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마가복음에서 유다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 사건들(막 14:47; 눅 22:50)이 있었지만 마가는 그것을 기록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것을 알기 원하지 않았다.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했다(출 33:14~15). 그리고 모세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의 절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출 14:19). 하나님의 임재, 즉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요일 1:3).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는 없다(롬 8:31, 38~39).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출 33:16~17).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보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의 소유권을 세상이 아닌 천국으로 바꾼다(창 12:1; 레 20:2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영예를 함께 예지 말라"와 불붙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정하여"(고후 6:14~17).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나(막 6:18).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요 3:17; 1:23).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간구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 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 33:18~19). 모세의 초점에 '자신'은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에게 주님은 은총을 덧입혀 주셨다. 이 은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요 1:17).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성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시 107:8).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셨다. 매 순간 자기를 포기하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의 삶을 주님은 인도하셨다. 그가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그의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삶도 독생자의 영광(요 1:14)으로 찬탄한 길그릇이 되길 원한다. 주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능력과 영광을 위한 간구를 쉬지 말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아멘.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막 14:48~49). 예수님의 걸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대 밟았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복음사역은 참으로 놀라웠다. 하지만 이때에도 소위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은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였다(막 11:18).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직 진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다(막 12:12).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이 모습에 놀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막 14:50).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이를 증거한다. 나 자신을 버리고, 거룩함과 의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며, 역을하고 박해를 받는 고통의 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원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홀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홀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막 14:51~52). 이는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다. 그 당시 배 홀이불은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는 둘 수 없었다(막 16:19). 그러나 마가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진 부자였다(행 12:12). 그래서 여기서 한 청년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한다. 배 홀이불을 버리고, 즉 예수님을 배신한 마가가 회개하며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결국 마가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성경을 썼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자존심과 거룩함, 의를 모두 버리자. 오직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자. 아멘.

* 매 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이번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8일(토) ~ 7월 25일(토)	9교구 2팀	전성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6일(월) ~ 7월 14일(화)	22교구 1팀	김성수
7월 7일(화) ~ 7월 15일(수)	12교구 2팀	오재일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9일(월) ~ 7월 7일(화)	6교구 2팀	장경록
6월 29일(월) ~ 7월 7일(화)	8교구 1팀	김광선
7월 1일(수) ~ 7월 9일(목)	14교구 1팀	이희우
7월 1일(수) ~ 7월 9일(목)	16교구 2팀	지정국

이 곳은 땅이 넓어 무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집 한 채의 물타기가 너무 깊어 물타기의 반 바퀴를 돌아가셔야 때문이 있다. 집 안을 향해 크게 소리치자 한참 후에야 사람이 내다본다. 집 안에는 여러 명이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밖이 더워 다리를 열고 집안에 있는가 보다. 축복 받은 집이라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다. 모두 웃는 낯으로 영접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어눌한 언어와 손짓으로 대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이 아니요, 먹을 것도 아니다. 영의 양식인 복음만을 전하고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고 기뻐졌다.

하루에 한 명씩은 아픈 사람을 만났다. 그들을 붙들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다. 서로 눈시울을 붉히며 깨안으면 우리 모두에게 향시는 주님의 선한 모습을 보았다. 오후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오는 길에 홀로 외로이 있는 천막 집을 심방했다. 열정거리며 찾아갔더니 어른들은 자기 일에 바빠 우리를 본 척도 안 하고, 어린이 3명이 우리 앞에 섰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진지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표정과 대답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 시켰다. 같이 있던 팀원 모두 같은 느낌이었다. 교회가 멀지만 다니겠다고 했다. 믿음의 확신이 보였다.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길도 없는 풀밭길을 달려 그 곳을 찾게 하신 것이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선한 눈망울, 코피가 나고 콧물이 흘러도 닦아주며 복음을 전하는 팀원,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한 후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아이들. 힘든 생활속에서도 당신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기에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이인숙(권사, 24교구))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체험한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선교지는 산악지대로 해발 1300미터 고지의 아주 낙후된 시골이었습니다. 산기슭, 산꼭대기에 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첫날의 어려움을 통하여 인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일정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깨달으며 더욱더 기도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의 산악지대 산길을 따라 집집을 찾아다니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며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한 마을로 가다가 ‘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들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혼례잔치가 있음을 알려 주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사역을 통하여 한두교를 믿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던 그들의 깨난 눈동자와 “아멘.”을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적힌 붉은 점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과 낙후된 그곳의 시설로 인해 사역이 힘들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짧은 기간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옥(권사, 18교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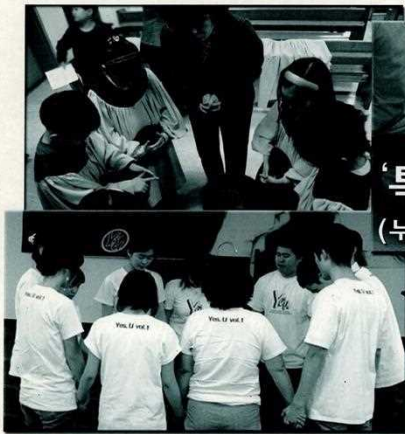
출발 전 사역지의 정국혼란으로 이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하였지만 모든 것이 기우였다. 사역지는 평안했고 이통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먼저 가서 사역지를 기뻐하여 가시뎡물을 제거하여 놓으셨고, 만 날 영혼들을 미리 예비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렸다.

사역국의 생활환경은 열악하지만 주민들은 참으로 순박하였고, 축호전도 때에는 앓을 자리를 마련해 주고 마실 것을 내 오려는 등 감동적인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 한 분으로 생각하지나 않을 까 하여,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저가 대가족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한 집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미리 조별로 확대 전도지를 준비하였다. 기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주 낙후된 시골 학교에 들어갔다. 먼저 교무부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는데 어느 한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환경이 너무 어려워니 복음 외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우리 팀은 단호히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물질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여 두 개 조가 각각 두 개의 교실로 들어가 준비한 몇 장의 전도지와 확대 전도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했다. 초라하게 보이는 학생들은 전도문장들을 큰 소리로 따라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 열정적으로도 잘 따라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들 학생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라다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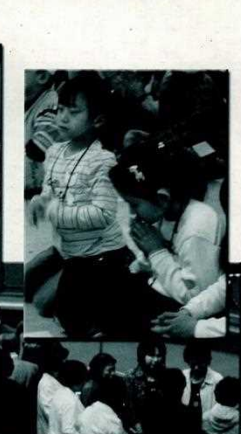
이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왜 복음화가 더딜까?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이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마 9:37~38). 그러나 사역 중에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도 있었다. 이 나라에도 복음화가 진행되어 몇 년 후면 더 많은 신자들이 우리를 반길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복음의 황무지인 이 나라의 선교를 위해 미려하나마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송헌천(인수집사, 7교구)



‘특별 기도’ (누가복음 6:12)

(누가복음 6:12)



십자가의 그 사랑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육을 채우고 나의 마음을 채우기에만 급급했지, 굶주리고 헛벗은 나의 영혼을 채우기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작은 나의 그릇에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쳐 흐릅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이 기뻐 쳐소, 오직 주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은총이 없이는 당신의 사랑을 담을 수 없는 죄인 된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나이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고난을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며 귀 기울이는 현명한 여인이 되도록 불쌍히 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비밀스런 천국의 구원을 품은 진정한 영혼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강선영(영년1부)

형식과 외식을 버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기에 예수님께서 본이 되는 기도방법(마 6:5~6)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모두 기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형식적으로 되뇌일 뿐 실천하지 않았습다. 이제는 주신 말씀으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않은,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에 따라 방법과 장소를 잘 선택하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주현(안수십사, 18교구)

주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시길 거라고 자만했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어느 순간 나의 기도와 예배는 점점 게을러졌고 생각해 보면 그와 더불어 어느새 나의 마음의 평안도 사라져갔다. 기쁜 일에도 앞으로 다가를 일들이 불안했고, 힘이 들 때면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에 가슴 아파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일찍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지난해 초, 제1차 청지기훈련에 맞춰 충현교회를 찾았던 것을 기억한다. 힘들고 불안했던 그 때, 중학교 은사님의 권유로 찾아오게 된 교회는 왠지 익숙했다. 생각해 보니 십 년도 더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분의 결혼식 때에 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청지기훈련 때문이었을까? 작년 충현교회는 기억했던 것보다 더 환하고, 더 따뜻했다. 붉은색의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예배당과 청지기훈련을 위해 교회안에서 가득 모인 성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책자와 그 안에 담긴 설교말씀과 찬송가. 그 아름다운 찬송과 예배에 반해서 교회를 다닌 지도 어느덧 벌써 일 년이 훌쩍 넘었다. 요즘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내 맘 속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평안함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낀다. 이런 주님께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지기에,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이지기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김동현(성도, 16교구)

소망을 주셨다

말씀을 들으며 그 동안의 나의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의 잦대로 세워진 삶이 그대로 이뤄지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나의 상처난 자존심이 안타까워 눈물 흘리던 기도 등등 오직 나를 위한 기도 뿐이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요” 여지없는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위로와 새 힘을 주셨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같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기도처럼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드리는 특별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의 삶이 내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 함께 온 이웃도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방영미(집사, 3교구)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 나 역시 이런 모습이었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생활을 돌아보았다. 식사하기 전에, 자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때론 모임에서의 기도조차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하는 것임을 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함에 있어서 무조건 길게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님도 깨닫게 되었다(마 6:7).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짧게 하더라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별 기도는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1분, 1초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모두가 특별 기도였던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장성준(대목부)

이제는 기도합니다

전에는 힘들고 슬플 때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죄인인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지기훈련 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단기선교를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단기선교를 나가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나가는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루이(외선부)



청지기칼럼

예수님은 진짜다!

아무것도 모르던 유년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간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과 가르침에 반해 나도 어른이 되면 교회 선생님이 되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였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도 열심히 믿고 믿을 좋은 청년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수시로 다 그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를대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믿음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해 왔건만 웬지 모르게 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형식과 외식뿐이었음을 차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위한 믿음생활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겉대끼기를 중요시하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갈 무렵, 주님께서 저를 충현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이아말로 주께서 나를 주님의 양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예비하신 일임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하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똑바로 보게 하였으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회개와 눈물과 자복하는 심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생활에 있어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매여 달릴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짧은 시절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이 죄인 곁에 계셨고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내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며 "예수님은 진짜"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가 끝없이 넘쳤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였고,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섬김을 감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다하여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그 날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진정 고백합니다.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주님의 어린 양이 어느덧 주님을 영접하여 애쓰는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무엇보다도 2009년에는 주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된 교회의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청년1부부를 섬기게 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보며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백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이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한 열한 한 열한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상복
(장로, 청년1부부장)

새가족양육부 6월 수료자

믿음의 첫발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마 16:24). 이 성경 구절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깨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성연)
-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심, 걱정, 모두 버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김안희)
-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현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첫발을 디뎠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하겠습니다. (박성영)
-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평일에는 학교나 직장을 가야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신앙 뿐이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곳에서는 항상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고, 충현교회의 발걸음이 제 신앙의 반향점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시간을 통해서 막연하기만 했던 주님과의 동행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제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최미래)
- 오랜 타국생활로 인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제 홀로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을 생애에, 친구들과의 교회에 다녔었지만, 정착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충현교회에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정말 말 그대로 새신자입니다. 어쩌면 자아가 아닌 사랑하는 남자와 친구와 사이에서 권유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금방 자리잡기 힘들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수료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이머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여름 제철학교

믿음으로 자라는 그들의 여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않은 않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이 되면 참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교양을 쌓고, 여행을 떠나며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되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지금 청소년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 여름을 보내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름을 가장 뜻 깊게 보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인생은 달라진다(골 8:28). 이를 위해서 지금 중고등부에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시 16:1)의 주제에 맞추어 여름수련회 준비가 한창이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진정으로 복음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린다. 복음을 깨닫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다(요일 5:4). 2009년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데 모든 성도와,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님이 함께 마중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은식(목사, 18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49	함미경	22	청년2부	오정희(21)	1164	곽창대	8	중등1부	곽준미(12)
1150	김계수	15	청년3부	정희경(15)	1165	김종환	15	청년2부	허은숙(15)
1151	유혜진	4	청년1부		1166	박광남	9	청년2부	장기녀(9)
1152	임수진	2	청년2부		1167	황미선	10	청년1부	이수연(8)
1153	양희원	8	청년1부	김용환(8)	1168	정경리	24	대학부	
1154	이옥수	1	청년2부	유은경(9)	1169	김진아	11	청년2부	이승준(10)
1155	김경태	12	청년1부	박우현(15)	1170	이재홍	6	청년1부	한은숙(5)
1156	신승희	10	청년1부	김윤경(7)	1171	류경민	20	대학부	정재선(5)
1157	안은정	6	청년2부	권진숙(6)	1172	신보배	14	청년1부	김수영(8)
1158	이미희	1	청년1부	남주영(1)	1173	이창진	4	사령부	김수영(8)
1159	유광남	10	청년2부	박민재(14)	1174	이하나	14	고등부	김수영(8)
1160	김경호	8	청년2부		1175	박혜은(25)	25	외선부	배지민(16)
1161	정두서	12	청년1부	김성혜(12)	1176	이은	25	외선부	유재성(22)
1162	김준미	15	청년1부	박재영(15)	1177	정현우	11	대학부	
1163	한지후	5	중등1부	이태영(5)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소 오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 2009 주한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